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정 승 석*

목 차

- 머 리 말
- 1. 한글대장경의 조성 과정
- 2. 한글대장경의 체제
 - 2.1. 구판 체제
 - 2.2. 신판 체제
- 3. 한글대장경의 구성
 - 3.1. 신판의 역사의식
 - 3.2. 내용 구성
- 맺음말

요 약

한글대장경 신판은 기본적으로는 구판의 편제를 수용하면서도 대체로 격리 양태로 간행되었다. 신판의 고유 번호는 간행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간행 시점에 혹은 출판 후에 부여되었다. 이때 구판도 신판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판의 편제는 관념상으로는 대정신수대장경의 일반 편제 및 구판의 편제를 채택한다. 다만 이 관념

*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

은 총목록에만 드러나 있다.

현행의 한글대장경은 내용 구성에서 낱권으로서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할지라도 전집으로서의 일관성은 빈약하다. 이는 내용 구성상의 지침이 부실했거나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판이 신판으로 개편되면서 구성상의 부조화가 심화되었다. 한글대장경은 체제와 구성의 완비를 위해 범례, 해제, 본문, 역주, 색인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선결 작업은 범례 설정이다.

머 리 말

한글대장경은 1965년 제1집 『장아함경』이 출판된 이래, 2001년 제318집 『일체경음의(慧琳) 색인』을 출판한 것으로 완간되었다. 이로써 동국역경원이 36년간의 대장경을 거쳐 추진했던 고려대장경 번역사업도 일단 마무리되었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불전은 1,514부이지만, 318책의 한글대장경에 수록된 불전은 1,618부이다. 한글대장경은 고려대장경에 편입되지 않았던 한국 찬술의 불전들을 대폭적으로 수록하였다. 그러므로 한글대장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역경사업의 결실일 뿐만 아니라, 한국 찬술의 불전들을 대장경에 대폭 편입하여 한국불교의 긍지를 천명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크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진즉 완간되어 그 역사적 의의까지 부여된 시점에서,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논자의 입장은 그다지 편치 않다. 역경원의 홈페이지에서 “1963년부터 진행해 오던 역경사업이 그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318권째를 발행하면서 한글대장경을 완간하고”¹⁾라고 토로하듯이, 한글대장경은 현대 한국불교의 역경(逆境)을 극복해 낸 성공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근대 이후 발간된 대장경의 일반 편

1) <http://www.tripitaka.or.kr/info.htm> 2008년 10월 20일 검색.

제로 비추어 보면 한글대장경은 기형적인 체제로 일단락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순전히 ‘온갖 우여곡절’이라는 사정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결실을 두고서 검토하는 것은 개선 및 보완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글대장경도 긴 장정 끝에 ‘완간’되었다는 것이지, ‘완결’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일찍이 한역(漢譯)대장경의 자국어 번역을 착수했던 일본의 경우, 1929년부터 昭和新纂 國譯大藏經을 간행했으나, 곧장 1935년부터 國譯一切經을 간행했으며, 근래 1993년부터 현재까지 新國譯大藏經의 간행으로 기존의 국역대장경을 일신하고 있다.

이미 완간된 한글대장경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완결에 필수적인 토대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 토대에 위의를(威儀)를 갖추는 후속 작업이 한글대장경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하 논자가 검토할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은 대장경에 걸맞는 위의에 국한한다.

1. 한글대장경의 조성 과정

한글대장경 조성이라는 역경사업은 동국역경원의 출범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개시되었다. 동국역경원의 주요 사업 중 한글대장경의 조성과 관련된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다.²⁾

- 1962.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종단 3대 사업의 하나로 역경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역경위원회법을 제정.
- 1963.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학교 총장의 합의로 동국대학교 내에 동국역경원을 부설기로 결의.
- 1964. 7. 21. 동국대학교에서 정식으로 동국역경원 개원.
- 1965. 6. 30. 한글대장경 제1집 『장아함경』 2,000부 첫 출간.

2) 『동국대학교백년사』, IV(서울: 東國大學校, 2007), pp. 456-7 참조.

- 1985. 한글대장경 제100집 간행.
- 1985. 5. 경명이 밖으로 노출된 신장정 한글대장경 발간 시작.
- 1985. 12. 역경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동국역경사업진흥회’ 설립 인가.
- 1994. 향후 4년간 13억원의 국고지원금 확보.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한글대장경 간행사업 활성화. 한글대장경 22책 간행.
- 1995. 7.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역경후원회 발족. 한글대장경 28책 간행.
- 1996. 한글대장경 32책 간행.
- 1997. 한글대장경 30책 간행.
- 1998. 국고지원 2년 연장. 한글대장경 33책 간행.
- 2000. 한글대장경 35책 추가 간행으로,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 완간.
- 2001. 9. 5. 고려대장경 번역사업 마감. 한글대장경 완간 회향법회 봉행. 전자불전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글대장경 개역·수정 및 전산화사업 결의. 문광부로부터 2004년까지 매년 4억원의 국고 지원.
- 2005. 한글대장경 개역·전산화사업 2차분 국고지원금 2009년까지 확보. 선문염송·염송설화 전10권 간행.

이상의 연혁에 의하면 한글대장경의 조성 과정은 아래와 같은 네 시기로 그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 1965~1985년: 추진기. 범불교적 과업으로 역경사업이 추진된 이래 한글대장경 구판 간행.
- 1985~1993: 침체기. 역경사업의 지원 모색, 한글대장경 구판의 신장정 또는 중판 간행.
- 1994~2000: 활성화기. 국고지원금에 의한 한글대장경 신판 간행.
- 2001~현재: 전환·개신기. 한글대장경의 개편 및 전산화사업 추진.

현행 한글대장경의 체제는 위와 같은 조성 과정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추이의 굴곡은 국고지원금의 유무 또는 규모에 기인한다.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국고지원금이 고갈되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가 국고 지원금을 다시 확보하면서 활성화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한글대장경의 간행

은 체제와 구성보다는 국고지원금에 의한 역경사업의 완수라는 결과가 우선시되었다. 이로 인해 한글대장경은 당초 의도했던 일관성 있는 체제를 고수하지 못하고 굴곡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침체기의 현황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애초에 한글대장경은 250책으로 간행될 예정이었으나³⁾ 1993년 현재까지는 118책 또는 113책이 간행되었다.⁴⁾ 이후 국고지원금으로 활성기를 맞은 한글대장경은 신판 체제로 돌입했다. 이 신판 체제에서 한글대장경은 추진기의 기간(既刊) 불전을 신간 불전으로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한글대장경의 간행은 일찍이 한국불교의 숙원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역경사업은 불교계의 자력으로 완결해야 할 것으로 인지되어 있었다.⁵⁾ 그러나 “동국역경원은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역경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⁶⁾ 이 같은 재정적 의존도가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는 역경사업과 같은 大佛事に 대한 거시적 안목의 부재에 기인한다.

동국역경원의 설립 당시 역경사업은 30년의 장기 계획으로 출범하였으면서도 총경비를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한글대장경 제1집이 간행된 지 6년째인 1971년까지 소요된 경비만도 1억 원을 상회(110,148,022원)했으며 이 중 약 60%는 국고지원금(66,291,000원)으로 충당되었다. 국고지원금은 1975년까지 매년 1,000만 원 정도로 유지되었다.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자체 조달 경비의 원천은 주로 총무원 보조금, 동국대학교 보조금, 판매 수입금이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판매 수입금은 적립금의 주요

3) 『대중불교』, 제131호(1993년 10월), p. 86 참조.

4) 정승석, 「불전 번역 사업의 과제」, 『釋林』, 제27집(동국대학교석림회, 1993), p. 75.

5) 이의 단적인 증거로, 동국역경원이 동국대학교 부설기구로 개원하면서도 ‘동국대학교 부설역경원’이라 하지 않고 ‘동국역경원’이라 한 것은 역경원이 언젠가 재원을 확보하여 법인으로 독립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동국대학교백년사』, II(서울: 東國大學校, 2007), p. 38.

6) 위의 책, p. 40.

재원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975년 현재까지의 적립금은 127,678,893원이었다.⁷⁾

한글대장경의 실제 간행비가 애초에 책정했던 예산을 훨씬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전 간행을 연면히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적립금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은 항상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1984년 동국역경사업진흥회를 설립하기도 하였지만,⁸⁾ 이후 역경사업은 국고지원이 재개된 1994년 이전까지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침체기는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에서 구판과 신판의 분기점이 된다. 재정적 난관이 없이 침체기를 겪지 않고 한글대장경의 간행이 지속되었더라면 한글대장경은 구판의 체제로 완간되었을 것이다.

신판으로 개편되어 완간된 한글대장경은 침체기를 극복한 일신의 면모를 잘 드러낸다. 그러나 한글대장경의 체제와 구성 중 적어도 체제만큼은 이 일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글대장경의 체제

2.1. 구판 체제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채택하면서 宋, 元, 明의 중국 대장경과 대교하고 증보하여 간행된(1924~1934년)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은 그 규모와 편제에서 이후 대장경의 표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 중 인도찬술부와 중국찬술부 55권에 수록된 불전들은 중국, 한국, 일본이 공유하는 공통의 대장경을 형성하며, <표 1>과 같은 24부의 편제로 배열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은 이 편제를 답습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여 제205집까지

7) 1975년까지 한글대장경 구성에 관한 상세 내용은 『東大七十年史』(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pp. 388 ff 참조.

8) 『동국대학교백년사』, II, 앞의 책, p. 40 참조.

간행되었다.⁹⁾ 한글대장경의 구판이란 이렇게 간행된 판본을 일컫는다. 이 구판이 시도한 변형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논소부를 한국찬술부로 대체하고 남전부를 추가한 것이다. 한글대장경이 저본으로 채택한 고려대장경은 논소부에 해당되는 불전들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소부를 한국찬술부로 대체한 것은 한글대장경의 위상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남전부를 추가한 것은 팔리어로 전수된 주요 불전, 특히 본생경(Jātaka)을 배려한 것이다.

<표 1> 대정신수대장경과 한글대장경의 편제 비교

대정신수대장경의 편제	한글대장경 구판의 편제 ¹⁰⁾
아함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경집부, 밀교부, 율부, 석경론부, 비담부, 중관부, 유가부, 논집부, 경소부, 율소부, 논소부, 제종부, 사전부, 사회부, 외교부, 목록부.	아함부, 본연부, 반야부, 법화부, 화엄부, 보적부, 열반부, 대집부, 경집부, [밀교부], 율부, 석경론부, 비담부, 중관부, 유가부, 논집부, 경소부, [율소부], 한국찬술부, 제종부, 사전부, 사회부, [외교부], 남전부, [목록부].

한글대장경은 애초 위의 편제에 따라 간행되었음을 다음의 <표 2>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간행본의 책 번호는 편제상의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간행본에서 종종 둘 이상의 부분을 1책으로 엮은 것은 유사 부문에 속하는 소분량의 불전을 한 권으로 포괄하려는 편집상의 고려일 뿐이다.

9) 책 번호로는 최소한 205책 이상의 구판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글대장경 총목록』(서울: 東國譯經院, 2001)에서 신판으로 개편된 상황이 기재되지 않은 구판의 번호는 다음과 같은 97책이다. 17, 19~25, 30~37, 39, 44, 46, 48~49, 54~56, 63, 68, 78~92, 96~100, 103~106, 108~120, 122~125, 127, 132, 134, 138~150, 157~158, 168~180, 187~194, 198. <표 2> 참조.

10) 아래에서 []로 표시한 부문에는 간행본이 없다. 그러나 신판에는 이에 해당하는 불전이 모두 간행되었다.

<표 2> 한글대장경 구판의 편제¹¹⁾

책 번호	편제	책 번호	편제
1	아함	69~77	경집
2	아함, 본연, 대집, 경집	78~92	?
3	아함	93~95	율
4	아함	96~100	?
5	아함, 본연, 경집	101~102	율
6~7	아함	103~106	?
8	아함, 경집	107	비담
9~10	본연	108~120	?
11, 13	본연, 아함	121	비담
12~16	본연	122~125	?
17(=16.2)	본연	126	중관
18	본연	127	?
19~25	?	128~131	유가
26~29	반야	132	?
30~37	?	133	유가
38	법화	134	?
39	?	135	유가
40~43	화엄	136~137	논집
44	?	138~150	?
45	화엄	151~154	한국찬술
46	?	155	한국찬술, 경소, 제종
47	보적	156	한국찬술, 경소
48~49	?	157~158	?
50~51	보적	159~167	한국찬술
52	보적, 경집	168~180	?
53	열반	181~184	사전
54~56	?	185~186	제종
57~61	대집	187~194	?
62	경집	195~197	사회
63	?	198	?

11) 아래의 표에서 ?는 미간행을 표시하지만, 편제상의 소속은 전후 관계로 유추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신판으로 간행되었다.

64	경집, 사회	199~200	사회
65~67	경집	201~205	남전
68	?		

이상과 같은 구판의 간행본들은 각기 편제상의 소속을 책의 안팎에 명시하였다. 우선 책등에 일련의 고유 번호와 함께 편제상의 분류명을 ‘136, 논집부 1’처럼 제시하고, 내지의 첫 장에 고유 번호를 명기했다. 조판은 당시의 출판 기술과 관행에 따라 주로 세로쓰기 활자판을 채택하였다.

2.2. 신판 체제

한글대장경의 신판은 고려대장경 전체¹²⁾와 한국찬술부의 후속 부분을 망라하여 당초 계획했던 역경사업을 일단 완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판은 기존의 체제를 상실한 채 원형을 유지하거나 재편집되어 신판으로 편입되었다. 신판의 관점에서 보면 구판은 새로운 체제로 개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새로운 체제’란 시대에 편승했지만 ‘생소한 체제’이고, 편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체제’로 귀결된다. 그 이유는 신판이 한글대장경 전체의 구성 체계, 즉 편제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채 간행되었다는 데 있다.

신판은 <표 1>에 제시한 구판의 편제에 배속시킬 수 있는 불전들을 총망라하였다. 이에 따라 신판은 내용상으로는 편제를 구축하였지만 형식상으로는 편제를 갖추지 않았다. 그 실태의 일면을 본연부에 배속되는 불전들의 일부인 <표 3>으로 확인할 수 있다.¹³⁾

12) 고려대장경에 편입된 불전의 전모는 「高麗大藏經의 편제 중 佛典名의 정식화 양상」, 『高麗大藏經의 研究』(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pp. 97-188 참조. 여기에는 대정신수대장경 및 『開元釋教錄』과 대조한 고려대장경의 편제 양상이 드러나 있다.

13) 상세한 현황은 본론의 부록인 「한글대장경의 구판 편제에 따른 신판/고려장/대정장 대조 목록」 참조. 이 부록은 본론의 고찰에서 주요 내용을 형성하지만 많은 지면이 필요하여 여기에 수록하지 못하고, 제10회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글대장경 체제와 구성의 문제』, pp. 95-121에 수록되

<표 3> 한글대장경 신판의 번호 양태¹⁴⁾

신판 번호	구판 번호	고려장 번호	대정장 번호	대표 경명
14	9	K.206	T.152(3.1)	六度集經
14	9	K.988	T.153(3.52)	菩薩本緣經
14	9	k.403	T.155(3.108)	佛說菩薩本行經
14	9	K.126	T.157(3.167)	悲華經
154	10	K.1385	T.159(3.291)	大乘本生心地觀經
154	10	K.212	T.167(3.408)	佛說太子慕魄經
156	18	K.402	T.156(3.124)	大方便佛報恩經
204		K.799	T.154(3.70)	生經
207		K.125	T.158(3.233)	大乘悲分陁利經
241		K.210	T.168(3.410)	佛說太子墓魄經

구판의 제10집 이하 제18집까지는 모두 본연부에 속하는 불전들을 수록했다. 신판 제14집의 편제상의 위치는 이 구판과 부합한다. 그러나 신판에서는 구판 제10, 18집에 배속되었던 불전들을 제154, 156집으로 개편함으로써 본연부에 속하는 불전들의 일부를 과격적으로 격리했다. 새로 조성된 신판 제 204, 207, 241집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한글대장경 신판은 기본적으로는 구판의 편제를 수용하면서도 대체로 이 같은 격리 양태로 간행되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전들을 간행하면서 대장경 전체의 체제를 재편성할 여유를 갖지 못한 결과라고 이해된다. 신판의 고유 번호는 간행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부여된 것이 아니라, 간행 시점에 혹은 출판 후에 부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⁵⁾ 이

었다.

14) 『한글대장경 총목록』, 앞의 책, pp. 585-6 참조.

15) 신판의 고유 번호는 별도로 제작되는 책갑(bookcase)의 뒷면에만 기재되어 있고 낱권의 본체에는 표지, 책등, 판권란 등 어디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다.

때 구판도 신판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판의 편제는 관념상으로는 엄연히 대정신수대장경의 일반 편제 및 구판의 편제를 채택한다. 다만 이 관념은 총목록에만 드러나 있다.

3. 한글대장경의 구성

3.1. 신판의 역사의식

한글대장경의 신판은 형식상의 체제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구판과 비교하면 신판은 전체의 편제보다는 각개 간행본들의 완성에 주력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신판의 성과는 인정받을 만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납득하기 곤란한 단점도 드러난다.

한글대장경의 구판은 신판의 전신일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불교의 역경사업의 효시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그럼에도 이 구판의 존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일차적으로 신판에서는 구판의 역사를 지워 버렸기 때문이다. 구판으로부터 개편되거나 구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신판에서도 구판의 존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제 신판이라는 구분이 거의 불필요할 정도로 통용되어 있는 한글대장경에서 구판은 출생의 비밀을 은폐하듯이 사장되어 버렸다. 어쨌거나 이는 출판의 상식에도 어긋난다.

신판에서는 기존 판본의 내용을 재인쇄하면서 초판으로 명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판 136(『니야야빈두』, 『인명입정리론』, 『간추린 인도논리학』)은 1969년 초판이고 1971년에는 3판으로 인쇄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신판 151로 재간행되면서 1995년 초판으로 명기되었다. 한편 구판 201(『지혜와 자비의 말씀』, 『밀린다왕문경』)은 신판에서 1995년 초판으로 명기되었다.

신판은 대체로 초판을 왜곡한 것은 아닐지라도 구판의 출생 정보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장아함경』은 신판과 구판에서 공히 제1집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신판에는 1995년 중판이라는 사실만 기재되어 있

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판 2(구판 3) 『중아함경』에도 “1999년 중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신판 66~67(구판 121) 『아비달마구사론』에는 “1989년 신판 1쇄”라고 더욱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

한글대장경은 성전이고 그런 만큼 권위와 위의도 갖추어야 마땅하다. 신판의 일부 토대를 형성한 구판의 역사는 그 권위와 위의를 제고할 망정 훼손하지는 않는다. 얼핏 성전에 대한 역사의식의 결여 또는 편협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이상의 사례는 근본적으로 한글대장경의 체제나 구성이 불안정한 데서 기인한다.

3.2. 내용 구성

한글대장경은 한문으로 작성된 불전들을 국문으로 번역함으로써 조성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고전 번역의 결과물이다. 고전 번역에서는 ‘해제, 본문, 역주’라는 세 범주로 원전의 내용을 구성한다. 이 구성은 고전 번역의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양식에 속한다. 그러나 단행본이 아니라, 한글대장경과 같은 방대한 전집인 경우에는 전집의 공통 원칙인 ‘범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 색인도 갖출 때 그 완성도가 공인될 수 있다.

한글대장경 구판의 구성 골격은 해제와 본문이고, 역주는 선택 사항처럼 간주되었다. 이는 역주를 필수 요소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주를 부기한 경우는 희소할 뿐더러 역주의 내용도 매우 빈약하다.

한글대장경 신판에서는 구판에 비해 역주가 현저하게 부각된 편이다. 그러나 신판에서도 역주는 선택적으로 부기되어 있다. 주로 논서(『성유식론』, 『아비달마발지론』,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등)에 역주가 있으나, 그 내용은 역자에 따른 편차가 현저하다. 더욱이 『유가사지론』 4책(110~113), 『대지도론』 5책(101~105)과 같은 주요 논서에는 역주가 전무하다.

방대한 전집에서 범례와 색인이 없다는 것은 아직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글대장경은 300여 책의 전집이면서도 범례와 색인이 없다. 물론 색인은 1935년부터 간행된 일본의 國譯一切經에도 없다. 그러나 이 대장경은 거의 전체에 걸쳐 상세한 역주를 부기한 점에서 한글대

장경과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근래 1993년부터 간행되고 있는 일본의 新國譯大藏經¹⁶⁾은 낱권의 책마다 색인을 첨부하였다.

현행의 한글대장경은 내용 구성에서 낱권으로서의 일관성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지라도 전집으로서의 일관성은 빈약하다. 이는 내용 구성상의 지침이 부실했거나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판이 신판으로 개편되면서 구성상의 부조화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간 조성 과정의 부침을 고려하면 그 사정을 이해할 만하지만, 성전의 위상과 위의를 고려하면 전반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맺 음 말

현재 한글대장경은 이미 전환과 개신의 시기에 돌입해 있다. 특히 한글대장경의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검토했던 문제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전산화의 기계적 과정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글대장경의 전산화사업은 한글대장경의 정비 및 개편 작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본론의 주제에 국한하면, 정비 및 개편 작업의 참고 사례로 들 만한 것은 일본의 新國譯大藏經이다. 이 대장경은 기존 國譯一切經의 체제를 수용하면서도 약간 개편하였다. 즉 기본적으로는<표 1>로 제시한 대정신수대장경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이 편제의 취약점을 제경부, 문수경전부, 여래장·유식부, 유가·유식부, 선정경전부 등으로 세분하여 보완하였다.¹⁷⁾ 이와 아울러 내용 구성에서도 “범례(공통), 해제, 본문, 각주(역주), [보주], 색인”이라는 다섯 또는 여섯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16) 東京의 大藏出版株式會社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권마다 표지에 校註者를 명기하였다.

17) 매년 4책씩 전체 120책 간행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인도찬술부 44책이 간행되었다.

굳이 新國譯大藏經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한글대장경도 체제와 구성의 완비를 위해서는 범례, 해제, 본문, 역주, 색인(한글/한자, 梵/巴/藏)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걸쳐 역주를 작성하는 것은 한글대장경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은 새 차원의 역경사업이 된다. 현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결 작업은 가장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범례 설정이다.

범례는 총괄적인 번역 지침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총괄 지침과 개별 지침을 포함한다. 총괄 지침의 주안점은 전체 불전에 공통으로 적용할 번역 원칙이다. 개별 지침은 각 불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불전에 적용할 번역 원칙이다. 개별 지침은 역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이 상이성은 총괄 지침에 의해 한정된다. 색인 작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례의 설정과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날권마다 색인을 첨부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총색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의 전산화사업과 병행하여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면, 이 개정 작업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불교학 전공 인력이 열악하지 않다. 이 전공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앉고서는 한글대장경의 진정한 일신을 도모할 수 없다. 공모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총괄적 범례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범례에 따른 개정 작업에 참여할 연구자들을 공모하여 현행 신판의 권별 또는 불전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전산화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도모하고 한글대장경의 위의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주제어: 신판, 구판, 편제, 한글대장경,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참고문헌

- 國譯一切經. 東京: 大東出版社, 1935~.
- 新國譯大藏經.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93~.
- 『대중불교』, 제131호(1993년 10월).
- 『동국대학교백년사』, II, IV. 서울: 東國大學校, 2007.
- 『東大七十年史』.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한글대장경 총목록』. 서울: 東國譯經院, 2001.
- 정승석, 「불전 번역 사업의 과제」, 『釋林』, 제27집. 동국대학교석립회, 1993.
- 정승석, 「高麗大藏經의 편제 중 佛典名의 정식화 양상」, 『高麗大藏經의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